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감회, '보험 3대 짝퉁' 척결 나서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보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(公安局)을 비롯한 사법기관 및 조사감독권을 가진 세관, 공상국(工商局), 세무국(稅務局)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를 해결하는 연합감독체제의 구축 방안을 발표함.
- 보감회는 보험 관련 형사사건 및 관리감독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안국, 검찰원, 인민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세관, 공상국, 세무국 등과는 수출입교역 관련 보험사기 부문의 예방 및 감독체제를 갖추기로 함.
 - 특히, 증가하고 있는 가짜 보험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인쇄만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임.
- 이러한 정책은 보감회가 작년부터 시행한 가짜 보험기구, 가짜 보험계약서, 가짜 보험금 지급 등 이른바 '보험 3대 짝퉁(三假)'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펼친 결과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.
- 보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건의 가짜 보험기구를 적발하고 약 1,804만 위안의 보험료를 추징하였으며, 가짜 보험계약서 19만 건(약 8,220만 위안), 가짜 보험금 지급 16,302건(약 4억 2천 위안 규모)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둠.
 - 또한 보감회가 범죄 행위로 분류하여 공안기관에 사건 처리를 의뢰한 83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10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, 35개 보험기구 및 그에 속한 개인에게는 행정처벌(경고 2개사 16명, 벌금 310만 위안, 직위해제 12명, 신규업무중단 1건, 영업허가취소 4건) 조치가 내려짐.
 - 특히,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보험중개기구 및 계약자를 완벽하게 속인 선뎡(申邦), 헝야띠(恒亞迪) 등과 같은 불법 보험회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 3대 짝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중국증권망, 3/18)